

# 군산시, 체납세 징수 인간힘

###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용... 차 족쇄 채우고 증권·코인 압류

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교부세 980억원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세 수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인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법적 사전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

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주간 운용하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탑이 체납자 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000만원이다.

시는 고액채납자 전담조직인 '체납

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관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천민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연 5회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반기 2차례에 걸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328억 원의 체납액을 안내했으며, 연말까지 3차례 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지난 11과 12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 군산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1과 12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이 주재하고 국소장 및 관공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적극적 재원 배분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전염병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지를 조사하고 서식환경 등을 고려해 11월 중 종패방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참담치 치패방류는 처음인 만큼 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며, 소비자에게 참담치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대규모 양식 산업화를 위하여 특성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관내 어업인들이 패류 단일품종으로도 고부가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만큼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관리적 반복사업을 재검토하고 연내 집행 가능 범위 내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세입여건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항정적인 세입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 위한 첫걸음 안착

### 군산시, 인천 수자원연구소 생산치패 무상수급 합의... 오는 11월 중 방류사업 시행 예정

군산시가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연안해역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인천수산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치패 10만미를 무상으로 수급, 합의를 이끌어 내 오는 11월 중 방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어업인의 고부가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신규품종 개발을 추진, 오는 2024년부터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참담치 치패를 3년간 생산하기로 지난 9월 6일 합의했다. 이는 지역의 신 특산품으로 신속하게 발굴하고자 지난 8월부터 인천수산연구소에 적극 요청해 이끌어 낸 결과다.

참담치 종패가격은 1미당 약 300원으로 3천민원 예산절감 및 성장과정 모

니터링 등 향후 방류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그간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해 자원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종자생산 기술을 통한 방류로 종 보존 및 적정 자원량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홍합은 알반에 붙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종으로 살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홍합인 참담치와 외래종인 진주담치가 있다.

참담치는 크기가 15~20cm로 껍질이 두껍고 거무스름한 색을 띠고 있으며 2~3년산 채취 가능 및 진주담치 가격의 약 15~20배 정도이고, 진주담치는 크기가 5~8cm로 껍질이 얇고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해 짬뽕

등 대용요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참담치는 식물성플랑크톤을 여과섭식하는 패류로 먹이생물이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해역에 조성하면, 추가적인 관리가 없어도 서식·성장이 가능한 종이다.

앞으로 전염병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지를 조사하고 서식환경 등을 고려해 11월 중 종패방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참담치 치패방류는 처음인 만큼 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며, 소비자에게 참담치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대규모 양식 산업화를 위하여 특성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관내 어업인들이 패류 단일품종으로도 고부가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허전 익산시 부시장, 전북디자인센터 소통행정

허전 익산시 부시장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디자인센터에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 부시장은 12일 왕궁면에 위치한 전북디자인센터를 방문해 "전북디자인센터와 연계한 익산귀금속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2018년 개소해 기업 디자인 지원, 디자인 전문가업 육성, 디자인 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기관으로,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허 부시장은 디자인동과 공동동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물에 대해 현장 점검과 시에서 추진 중인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의 귀금속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전북디자인센터장으로부터 주요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 부시장은 "전북디자인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시 귀금속 디자인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현장 행정에서 나온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익산시 귀금속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과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제5산업단지 조성... 본격 행정절차 돌입

익산 미래산업을 선도할 '제5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달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신규 산업입지 수요 대응 공간 마련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공식적인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시는 제5산업단지의 사업 규모, 시기 내용 등을 담은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받기 위해 전라북도에 타당성 조사의 회의를 제출했다.

제출한 의뢰서는 추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를 거쳐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공제회)에 보내져 사전검토 후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로 약 6~8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에 앞서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와 한국지방재정공공제회 사전 컨설팅을 거쳐 이번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의 연속적인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제5산업단지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5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시의 강점인 우수한 교통 여건 및 조성된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약 108만㎡(약 60만 평) 부지에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갈 차세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군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공모에서 사업 수행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9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입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만40~64세 중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만3~34세 가족 돌봄 청년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2023~202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군산시는 2023~202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으로 실시되며 이전 접종한 백신의 종류, 차수와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이번 접종이 완료된다.

코로나9 감염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할 수 있으나 이전 코로나19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 및 봉사자는 접종 권고 대상으로 10월 19일 우선 접종을 시작하며, 사전예약은 9월 28일부터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1339,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어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